

수아심장도 최소절개술 각광

4~6cm만 절개 : 조기회복·미용효과 커

서울대병원 김유진교수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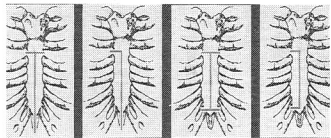
아심장에도 적용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25~30cm, 소아는 15~20cm를 절개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고 흉골이 뒤뜰어지거나 부상이 제대로 안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고 특히

작기간의 입원으로 환자가 부담이 컸다. 김교수팀은 77예의 선천성심장장애에 대해 흉골의 일부만 절개하고 수술조작

을 최소화하는 한단계 진보된 최소절개 심장수술을 시행했다. 환자유형은 심실 및 심방동맥결손증이 68예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분

◇흉골소절개 주요 도식도



최근 일반화 추세에 있는 심장수술 최소절개술이 소

흉골의 개신술은 목 아래에서 멀치빠까지 선의경

서울대병원 수아회복의과 김유진·李正烈교수팀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7예의 다양한 선천성심장장애에 대해 최소절개 심장수술을 시행,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소아에 적용된 최소절개 심장수술은 피부 및 가슴뼈를 4~6cm만 절개해 수술 후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통증의 감소, 미용적 우수성, 빠른회복, 환자의 자신감 고장등 장점이 크다고 시술 고을 밝혔다.

발실종결결손증 4예, 환로씨사정증 2예, 전폐정맥이선연결증 1예등 임상영역 확대가 이뤄졌다. 수술방법은 흉골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흉골의 일부를 T형, J형, I형, 역C형등의 형태로 절개해 수술시야를 확보했다. 따라서 고단이의 술기를 요하므로 적용시 신중한 절토가 필요하다. 절개 길이는 평균 6.3cm였고 상흉골관 합발증 및 수술자 말에는 한자도 없었다고 시술팀은 밝혔다.